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건강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하나님 나라와 교회” 주제로

각 부서 여름행사 이번 주 개막

이번 주부터 교회학교의 성경학교와 수련회, 각 부서의 여름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6일(화)부터 1박 2일간 가지는 당회원수련회와 16일(화) 철야로 가지는 탁아부 교사수련회를 필두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라는 주제 아래 유치·유년·초등부의 여름성경학교가 이번 주에 일제히 개막된다. 또한 사랑부도 17일(수) 양재시민의 숲에서 일일 성경학교를 개최한다.

찬양대 혹은 선교교회와 전도회의 행사들도 계속될 예정이다.

각 부서는 여름행사를 통해 주일의 짧은 시간으로는 부족했던 경건훈련과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집중적인 영성훈련의 기회를 갖게 된다. 특별히 이번 여름행사가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거듭난 인간·성숙한 신자·하나님의 이를 이루는 천국시민으로 한걸음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여름철 교단차원 연합사업 활발

남선교회 제 55회 전국대회 - 8월 19일,
여선교회 제 61회 전국대회 - 9월 4일부터

지난 6월 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주최한 선교·교육·봉사대회에 이어 이번에는 남선교회와 여선교회가 각각 전국대회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전국 남선교회연합회 제 55회 총회 및 전국대회가 오는 8월 19일(월)부터 3일간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전국 51개 노회에서 총대로 참여할 약 2천여 회원들은 해마다 평신도 사역에 기여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는 주제 하에 모이는 이번 대회에서 주제강연은 이종윤 목사가 맡는다.

한편 전국여선교회 제 61회 총회 및 전국대회가 오는 9월 4일(수)부터 3일간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세계로 향한 선교여성’이라는 주제로 모인다. 이 대회에서 이종윤 목사는 성경연구 시간을 두차례 맡는다.

⊗ 각 부서의 여름행사 ⊗

부서	강사	실시일	장소
당회원	이종윤 목사	7월 16일(화)~17일(수), 1박 2일간	충북영동 선회은행연수원
탁아부	이영희 집사	7월 16일(화)~교사수련회	교회당
유치부	홍영록 전도사	7월 17일(수)	교회당
유년부	이상진 목사	7월 17일(수)~18일(목), 2일간	교회당
초등부	박종상 교역사	7월 17일(수)~18일(목), 2일간	교회당
중등부	박귀환 목사	7월 22일(월)~25일(목), 3박 4일간	충북영동 선회은행연수원
고등부	김명현 목사	8월 8일(목)~10일(토), 2박 3일간	노량진교회 수양관
대학부	원호 목사	8월 7일(수)~10일(토), 3박 4일간	한울교회 수양관
청년부	이만열 전도사	8월 14일(수)~16일(금), 2박 3일간	강화도
소망부	이종윤 목사	8월 8일(목)~9일(금), 1박 2일간	미정
사랑부	임진태 목사	7월 17일(수)	양재시민의 숲

새 예배당 건축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교회는 예배당을 신축하기 위해 오래동안 기도해왔다. 성도들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사회에 주신 큰 선물인 줄 알고 경건한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여 왔다.

그러나 강남구청에 들어온 민원으로 인해 행정당국은 우리교회 건축의 허가를 지체하고 있어 기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같은 일은 주민편의만을 고려하는 구청의 건축허가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조선일보 7월 8일자).

우리교회는 강남구청에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우리교회 새예배당 부지에 사실과 다른 현수막이 붙었다.

창세기
강해

양심과 고통

(창세기 42장 17 ~ 25절)

이종윤 목사

하나님의 영이 굳은 양심에 불붙기 시작하면 우리는 잘못된 과거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욱 뜨겁게 불어오면 회개하고 용서와 죄 씻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의 열 형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쌀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왔다가 동생을 노예로 판 일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히브리어로 하는 자기들끼리의 말을 못 알아 듣는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 말은 하나님께서 안듣고 계시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형들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자신들은 12 형제였는데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다른 하나는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형들은 요셉을 형제라 칭하지 않았습니다. 도단에 있을 때는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동생이라 부르며 자신들의 죄과를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21 ~ 22절).

1. 고독을 통한 양심의 회복

인간은 고독과 고통에 처해야 비로소 부패하고 타락한 양심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양식이 없어 핍절하게 되어 애굽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예리한 질문을 통해서 가혹할 정도로 형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넣어 고독을 맛보도록 하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독입니다.

현대인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천박한 삶, 무서운 종교적 독선, 복음을 위한 모임에서 놀이가 우선하는 것, 인간이 영광을 받는 것, 종교적 형식주의, 위선적 신앙교제, 타락된 인간성 등이 그것입니다. 반면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죄가 없는 한 고독은 하나님의 가치있는 선물입니다.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천박한 삶을 사는 이유 중 하나는 고독을 음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고독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떼어 놓지만 너무 바빠도 우리 삶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고독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위해 필연적인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분주하고 틀에 박힌 삶에서 한발자욱 물러서야 합니다. 고독한 상황은 고백하지 못한 죄를 애써 잊어버리려 하는 죄를 인식시켜줍니다. 병들거나 실직하게 되면 고독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독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2. 압력을 통한 양심의 회복

3일간 투옥된 후 형들은 비로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애굽 총리는 그들을 풀어준 후 더욱 어려운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집에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형제 중 한사람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풀려날 수 있을지, 죽을지, 귀국할 수 있을지... 그 운명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모두 과거에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한 불효자식이요,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과 간통한 비도덕적인 인물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 겹사람들을 살육하였습니다. 이같은 악한 죄를 저지른 이들이 "아우의 일로 죄를 지었다" (21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그때 일을 회상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시므온을 감옥에 남겨두고 귀국했습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할 것을 자원했습니다. 결국 감옥의 압력이 그들 양심을 작동케 한 것입니다.

3. 쓴 기억을 통한 양심의 회복

고독은 그들 과거 기억을 새롭게 합니다. 요셉의 이름을 그들이 공개적으로 토론했습니다. 과거의 쓴 기억을 회상케함으로 양심을 일깨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함으로써 고통을 주면서 동시에 먹을 양식을 주어 고향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시116:5).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 아니라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을 반영한 것입니다.

객점에서 형들은 자기들이 지불한 돈이 곡

식자루에 있음을 발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매를 때리시면서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시므온은 인질로 잡혔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하는 상황에서 야콥은 통곡을 합니다. 이것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의 죄를 잘 알면서도 형들을 만났을 때 뒷방에 가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울고 있는 요셉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은밀하게 도우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순례자 컬럼 ✧

"가치추구의 삶"

인간의 삶이란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값있는 것을, 그리고 의미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가치추구의 생활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어떤 이는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일생을 투자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사회적 도덕적 또는 종교적 가치를 찾아 헤매이기도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 멀리서 무엇을 얻으려고 허덕일 때가 많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그것이고 건강과 지식과 젊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아닐까. 가정과 친구도 가치라면 가장 고귀한 것이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 선이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보화를 보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즉시 얻을 수 있도록 결단을 재촉하는 일이다. 보화를 얻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기희생이 전제되어야 하듯 옛사람의 편견과 죄로 오염된 쾌락과 수고를 버려버리고 영원에 이르는 큰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자.

강남구청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우리교회의 입장을 밝힌 글

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제목: 서울교회 교회당 신축에 관한 민원사항에 대한 응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신한국 건설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권문용 강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본 교회가 신축코자하는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민족과 사회에 주신 큰 은혜의 선물로 믿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경건한 마음과 사명감을 갖고 이 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건축허가 사전예고를 한 후 몇 가지 민원사항이 있었음을 귀하로부터 통보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축허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은

첫째, 지하굴착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 붕괴위험에 관한 것과

둘째, 새로운 건물이 건축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혼잡에 대한 우려로 설계된 바와 같은 건축물은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제기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그 타당성과 적법성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와 조치가 따르지 않는 한 또하나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될 것을 우려하면서 우리는 정원인으로서 법이 정한 권익을 주장하기 이전에 당국의 노력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서면으로 통보하고자 하오니 헤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하 굴착으로 인한 아파트 붕괴를 운운한 것은 건축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민원인들의 주장과 같은 비전문적 상식과 추측만으로는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또 이미 이것은 토지 상에 전소유자인 목양교회가 지하 4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은바 있었으며, 이는 당시 귀 구청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지하 굴착으로 인한 아파트붕괴의 위험은 없을 것이라는, 즉 그 설계가 기술적으로 적법하고 온당한 건축설계라는 판단을 전제로 허가한 것이라 이해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국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주)정림건축의 구체적이고도 책임있는 설명과 소명이 있을 줄 압니다. 덧붙여 본 교회로서는 지하에 본당을 설계함으로 한정된 공간이용은 물론 주민에 대한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사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을 감수하고 지하층 건설을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 교회에서는 위 공사규모에 상응하는 신뢰할만한 건설회사를 시공회사로 지정하여 공사를 발주할 계획인 바 만일 그와 같은 안전시공에도 불구하고 지하굴착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귀 구청이나 민원인 측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것이므로 현 건축허가심의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는 더 이상 문제제기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주민들이 우려한다는 교통혼잡에 대하여 이는 현상황에서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풀어야 할 공동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건물이 종교목적으로 주로 주일에만 한시적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심각한 상태는 안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주차 시설을 갖추어 줄 것이고 이와 별도로 인근의 공공시설 또는 주차시설을 대여받아 사용할 계획이며 특히 불과 100여 미터 이내에 대치지하철역이 인접해 있으므로 성도들의 희생을 호소하여 교회출석 시에는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수단을 주로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므로 문제를 극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주차혼잡 문제에 대한 대책은 이를 직접 처리하여야 할 본 교회에서 먼저 걱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인근 주민은 더 이상의 우려는 필요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강남과 같이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에서 내 집 마당만 밟고 사는 사람이 없듯이 도심지에 살고 있는 시민답게 피차 조금씩 어려움을 감수할 수만 있다면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본래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기능이 있어 지역사회에 불편을 가져오거나 희생을 요구하기보다는 유익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다소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3. 서울교회 성도들은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님과 신뢰받는 공직자 여러분의 정당한 판단과 권익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집이요 성도들의 신앙의 요람이 될 터이니 후일에 원망과 후회가 없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일평생 피땀흘려 얻은 재물을 아낌없이 바친 성도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명령을 이루려고 시작한 이 성전건축의 대사업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 일에 협조해 주신 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6. 6. 14.

수신: 권문용 강남구 청장

제목: 서울교회 신축예배당 허가의 건(집단민원 사전심사의 건)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신한국 건설에 수고를 하고 계신 권 강남구청장님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6월 14일 서울교회 신축에 대한 민원인들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간단히 서면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건은 아직도 표류중에 있는 배와 같이 민원이라는 이름 하에 결재가 계속 지연되면서 이제는 '집단 민원 사전심사에 상정했다'는 귀 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우리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 법과 질서를 생명으로 하고 있는 행정 당국이 법에도 없는 민원사항으로 인해 인허가 심의를 보류 또는 연기하는 처사는 옳은 판단이라 사료되지 않습니다.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적 자문과 평가를 받아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할 당국의 이같은 처사는 부득이한 경우라 해도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 또한 주민들이 노상에 붙인 현수막에 '주택가에 초대형 서울교회 댐 말인가', '교회가 영리 목적 댐 말인가'라는 선동적이고 사실과 다른 구호를 써붙여 놓은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행정 당국에서 이같은 사실을 며칠씩이나 방치해 놓은 것도 우리를 매우 괴롭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3.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당국의 처사를 탓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귀 구청이 끊임없이 타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다만 '집단민원 사전심사'라는 과정을 통해 이기적인 민원사항에 치중하다가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또다른 권리가 묵살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4. 귀 구청의 성의있는 결정이 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이미 전 편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귀 구청의 중재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하면서 96. 6. 22일자 (건축58550 - 6763)로 요청하신 집단민원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실 것을 양원하면서 불비례합니다.

1996. 7. 1.

■ 새가족이 되고 보니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은 기쁨으로

조부환 · 한순자(4교구)



우리 가족이 서울교회에 등록한 지 이제 겨우 4개월이 지났다. 짧은 기간동안 우리 가정에 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은 너무도 큰 것이었다. 우리 가정의 잘못된 믿음의 세월, 즉 잃었던 지난 시간들을 한꺼번에 되찾은듯한 환희의 시간들이었고, 삶의 목표를 뚜렷하게 재정비하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특별히 96홍해작전 기간 중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새벽기도회를 갈망하며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강단을 통해 들려오는 말씀마다 우리 가정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입술에는 감사가 넘쳤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월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어 마치 돌짜발, 가시밭과 같았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불쌍했었던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앞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었다. 마치 온갖 공해에 찌든 하늘에 억센 장마비가 지나간 후 쾌청한 아침 하늘을 보는 것같은 맑고 평화로움이 우리 가정에 찾아들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라고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난 4개월간 들려주신 음성과 그에 따른 우리 가정의 결단을 몇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에 중심이 되신다" -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부터 생사의 일까지 주관하고 계시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둘째,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 짧은 인생동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리라.

셋째,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로 기도하는 삶을 살리라.

넷째,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라" -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항상 정결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리라.

위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이사야 40 장 31절)

단신

동아일보 순례자컬럼 토요일 게재

동아일보에 게재 중인이종윤 목사의 고정 컬럼 〈순례자〉가 매 주 토요일판에 실린다. 매 주일 아침 독자들의 마음의 양식으로 읽혀 지던 컬럼이 신문사가 격주로 주일에 휴간을 하게 됨에 따라 7월부터 매 토요일 조간에 게재 된 것이다.

한국로잔위원회 제 3차 조찬기도회

한국로잔위원회(의장: 이종윤 목사)는 7월 19일(금) 우리교회당에서 조찬기도회를 갖는다. 세계로잔위원회 전 국제총무 톰 휴스턴 목사의 방한에 즈음하여 열리는 이번 기도회에서는 아시아로잔대회 및 세계복음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감사 · 찬양 · 영광

맥추감사절이었던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에 초등부학생들의 감사찬양이 있었다.

탁아부의 아기들은 저금통을 털어 고사리 손으로 모은 물질을 건축헌금으로 바쳤다. 첫머리가 아기들에 의해 바쳐진 142,691원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쓰이게 될 것이다. 성도들은 철없는 아기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도 들어주실 줄 믿고 서울교회를 생명의 요람으로 삼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먼 훗날 민족과 사회를 이끌어 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길 함께 기도하였다.



■ 목회자 · 교우 동정 ■

- * 이종윤 목사는 12일(금) 126기도회가 주최한 춘천복음화를 위한 집회에서 설교.
- * 김영보 · 심명숙 성도(8교구) 가정은 8일(월) 득녀.
- * 김중윤 집사(4교구)는 동아일보 관리국 차장(여의도 사옥 책임)으로 영전(☎ 781 - 0870).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기독교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4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학교의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를 위해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3. 새가족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4. 투병 중인 성도들과 영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